

[생활과 윤리]

1	①	2	④	3	①	4	⑤	5	②
6	④	7	③	8	④	9	①	10	④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②
16	④	17	②	18	③	19	③	20	⑤

01. 윤리학의 분류

가는 이론규범윤리학, 나는 메타윤리학의 입장이다.

① 이론규범 윤리학의 입장으로 보편적인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윤리학의 지향점이라고 주장하므로 타당하다.

02. 양적 공리주의 이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벤담이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쾌락의 질은 동일하며 오로지 양적 차이만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03. 하버마스의 담론윤리

하버마스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 판단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담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하였다. 합리적 존재자들은 자기 수정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오류가능성을 당연히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

04. 도덕적 추론 능력 측정

제시된 도덕 추론에서 소전제는 '인간 배아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단순한 세포덩어리이다' 가 된다.

5. 토론의 핵심쟁점

갑은 SNS를 통한 광고의 규제, 을은 광고의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핵심쟁점은 'SNS를 통한 광고는 모두 금지되어야 하는가?' 이다.

6. 동양 사상의 이해

갑은 유가, 을은 불가이다. 불가는 인연생기설에 근거한 자타불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자비를 통한 중생의 구제를 추구한다.

7. 국가와 시민의 윤리

갑은 홉스이고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는 소유권이 보장될 수 없고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는 사회를 이룰 때 비로소 소유권이 보진된다고 보았으며 로크는 주권자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인 통치를 했을 때 인민의 판단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8. 음식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에 대한 이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중용은 산술적 평균이 아니라 가치론적 절정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음식을 섭취할 때도 중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9. 시민불복종의 이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양심의 표현이고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는 것이 시민불복종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10. 칸트의 예술관

칸트는 예술과 도덕은 별개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형식에 유사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감성에서 출발하는 아름다움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으로 진전될 수 있으므로 미적 체험은 도덕성 고양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11. 교정적 정의의 이해

갑은 베카리아이고 을은 루소이다.

베카리아는 인민의 생명권은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형은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베카리아와 루소는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정의론을 펼치므로 사회 계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형벌은 부정의하다고 보았다.

12. 정약용의 공직자 윤리

정약용은 공직자가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을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멸사봉공의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보았다.

13. 성과 사랑의 윤리

갑은 보수주의 입장, 을은 중도주의 입장을 표명한다.

갑과 을은 성적 관계는 공통적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분배적 정의의 이해

갑은 롤스이고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를 배제하기 위해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고 롤스와 노직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른 소유물의 절대적인 권리를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노직의 최소국가는 교정적 정의를 수행할 뿐 소유물을 분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15. 환경윤리의 이해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레오폴드이다.

칸트는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없고 오로지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하였으며,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공동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16. 국제 관계이론의 이해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모건소는 세력균형이 이기적인 각 국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평화의 조건임을 인정하지만 국제법의 효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17. 죽음의 윤리

갑은 인의 실현을 강조하는 유가, 을은 도가 사상이다.

유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강조한다.

18. 요나스의 책임윤리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함에 성공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위적인 책임의 확장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19. 원조의 입장에 대한 이해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의 입장이다.

롤스는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가 빈곤의 근본적 원인이 아님을 강조하고 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문화의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롤스와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결코 인류 복지 수준의 균등화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20. 종교 윤리에 대한 이해

그림의 강연자는 종교 간의 관용의 정신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